

윤선도·정약용과 함께 '풍류에 살어리랏다'

해남·강진군 대표 인물 연계
체험·관광형 콘텐츠 공동 개발기로
국토부 공모 선정...국비 20억 투입
탐방 프로그램 등 힘 모으기로



해남군과 강진군이 협력해 국토교통부 '2020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해남 고산 윤선도 유적 녹우당 안채(왼쪽)와 강진 다산초당.

해남군과 강진군이 두 사군을 대표하는 인물인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을 연계한 체험·관광형 콘텐츠를 공동 개발한다. 테마는 '풍류에 살어리랏다'이다.

13일 해남군과 강진군에 따르면 두 사군이 함께 공모 신청한 국토교통부의 '2020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이 국비로 전액 지원된다.

해남군과 강진군은 체험형 패키지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경우 우선 선정한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두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공모 사업을 추진,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과 강진군은 '자연, 역사, 예술, 문화, 차, 인물, 먹거리, 길'이라는 핵심 키워드 8가지를 서로 연계할 경우 체험형 관광 브랜드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특히 인물이 초점을 맞췄다.

해남의 대표 인물은 고산 윤선도이고, 강진의 대

표 인물은 다산 정약용이다. 이들은 한 집안이다. 윤선도의 증손이 공재 윤두서이고, 윤두서의 외증손이 정약용이다. 정약용의 어머니가 해남윤씨로 윤두서의 손녀여서, 정약용은 곧 윤선도의 후손이 된다.

해남은 고산 윤선도의 고향이다. 조선중기 문신이자 시인으로 정철·박인로와 더불어 조선 3대 시가인(詩歌人)으로 꼽히는 윤선도는 당대 문단에 우리 글로 아름답고 독창적인 시를 발표하며 국문학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의 증손 윤두서는 국보 240호 '자화상'의 주인

공으로,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선구자다. 그가 남기고 간 그림들은 반세기 지나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으로 승화했다.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용은 친가보다 외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외가인 녹우당은 해남윤씨 종가로, 집안에 만권당이라는 장서각이 있었다. 그곳에는 1만여권의 서적이 비치돼 있어,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래서 정약용도 외가에 대해 "나의 정분(精分)은 대부분 외가의 혈통에서 받았다"라고 했다. 다산은 '한국학의 다성(茶聖)'이라 추

앙받는 초의선사와 인연을 맺었고, 초의는 추사 김정희와 막역했다.

해남군은 앞으로 고산 윤선도 유적지 일원 전통 정원 조성, 강진군은 다산유적지 일원 애철양 공원을 조성해 광역단위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문화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학생 수학여행단 공동유지 및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관광마케팅 홍보 등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완도 군외면 국민체육센터 25억 들여 내년 2월 건립

국민 건강 증진·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완도군은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외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감도)

군외 국민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군외면 원동리 204-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999㎡ 규모로 조성된다. 이달 말 착공해 내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게 됐다"며 "배구·농구·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은 물론 각종 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노화음과 청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추진, 체육시설이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섬 단호박' 300t 일본 수출

다이어트 식품 인기

신안군은 청정지역 게르마늄 토질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뛰어난 2020년산 단호박 300t을 일본에 수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안에서 생산된 '섬 단호박'은 40농가가 참여한 생산자단체가 수출대행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지난 4월 54ha에 파종, 지난달 900t을 생산했다.

300t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남은 600t은 내수 판매를 통해 4억5000만원 상당의 농가소득이 예상된다.

신안 단호박은 비타민B와 C를 다량으로 함유하

고 있어 칼슘·무기염류·당질이 풍부하고, 항암효과와 노화방지, 변비 등에 좋은 웰빙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어트식품으로 국내 소비자는 물론 일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섬 단호박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농가에 종자비, 멀칭비닐, 농자재비 등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기계화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 단호박 생산자단체는 올해 수확한 섬 단호박 300t을 일본으로 수출한다.

<신안군 제공>

무안군, 양돈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무안군은 올해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고기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

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FTA 이행으로 과수와 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3년 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돼지를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생산하고 2019년에 돼지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다.

다만, 폐업지원금 대상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족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도

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무안군은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2013~2014년 한우 36억원, 2015년 닭 9억원, 2018년 염소 4000만원을 지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청년 고용하면 기업·청년에 장려금"

해남군, 취업 촉진·장기근속 지원

해남군은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위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취업장려금으로 1인당 3개월간 기업에 최대 200만원, 청년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으로 분기별로 기업에게는 최대 150만원, 청년에게는 300만원, 3년차에는 근속장려금이 기업 최대 150만원, 청년 400만원이 지원된다.

4년차 고용이 지속될 경우 청년에게만 장기근속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해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만 18세~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꽃詩로 엮은
꽃으로 오는 소리
조선의 낭송 시집

꽃으로 오는 소리

조선의 낭송 시집

시인 조선의

"조선의 시인은 꽃을 통해 자신의 시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꽃이 던지는 언어를 깊이 공감하고 상상력과 결부하여 형상화한다. 문학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당연한 자연이다. 그런 사실적 진실을 벗어나지 않은 진정성이 시적 상상력으로 진전한 것이다. 금번 여섯 번째 시집으로 엮어낸 시편들의 문학적 함의와 정서에 대한 호기심은 가독성을 사유토록 야기한다. 그 시편들 속에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진정하게 이뤄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탐색과 모색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철영 시인·문학평론가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기독신춘문에 당선
백교문학상
신석정추천문학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꽃으로 오는 소리,